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2012년 9월 27일(목) 11: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동반성장팀장 최우혁(02-2110-3861), 박일철 사무관(022110-3995)	

동반성장 2주년, 정책성과 보고

– 홍 장관, 2012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정책성과와 향후과제 발표 –

□ 정부는 9.27(목),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2012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을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 개최하였음.

○ 동 행사는 동반성장 정책 2주년을 맞이하여 現정부 국정 하반기의 핵심의제인 동반성장 정책을 점검하고, 동반성장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기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정운찬 前동반성장위원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정부·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함

< 홍석우 장관의 성과보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현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합의와 문화정착을 통한 기업의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함

○ 문화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민간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 이후('12.10), 82개 中企적합업종을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기업간의 약속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2.7 동반위 실태점검)

○ 또한 올 5월 대기업의 노력을 평가하여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분위기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지원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마련됨

□ 동반성장 투자확대 등 기업의 참여도 확산되어 가고 있음

○ '12년 30대 그룹의 동반성장 투자는 '10년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으며, 총 4조2천억원이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투입됨

○ 성과공유제도 확산되어 연말까지 70여개사가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기관들도 솔선수범하여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중

□ 동반성장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현장행태도 서서히 변화하는 움직임*

*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10년 49.4%→ '11년 44.9%로 감소, 협력업체의 단가인상 요구에 대한 수용비율도 '10년 31.1%→ '11년 37.2%로 상승

□ 정책적 노력과 기업의 참여로 중소기업의 체감도도 개선

○ 1차 협력사 실태조사* 결과, 86%의 기업이 2년전보다 '대기업 노력이 개선', 85%가 '부당한 단가인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12.9월 동반성장위원회가 670여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공공기관의 협력中企중 73%가 '동반성장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평가*

* '12.1월 지식경제부가 공공기관의 협력기업 1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

○ 그러나 2·3차 협력업체로 동반성장이 원활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음

□ 앞으로는 그간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가는 한편, 기업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감도 제고에 주력해 나갈 계획임

○ 단기적으로는 실물경제·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계약 제도 개선, 중견기업 육성 등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제조 중심의 동반성장을 비제조 분야(금융·의료·교육 등)로 확대, 동반성장을 지역으로 확산,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임

※ 한편, 기념식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모범사례가 발표되어, 향후 동반성장 모델의 확산 계기가 마련되었음

〈붙임〉 동반성장 사례발표 주요 내용

1 대·중소기업 공동발표 : ㈜세일이앤씨(포장 수상기업)-㈜포스코건설

○ (내용) 세일이앤씨-포스코건설 해외동반진출을 통한 남미시장 개척

- 칠레 등 남미 현장에 해외동반진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서로의 협업을 통해 극복

세일이앤씨는 '08년 포스코건설의 제안으로 칠레 발전소 공사에 처음으로 참여함. 현지 상황은 남미의 사회주의 성향의 강성노조, 불리한 노동법, 엄격한 안전규정, 언어장벽 등으로 현지 회사들도 못견디고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로 열악했음. 그러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포스코건설이 앞장서서 현지 발주처를 설득해주었고, 지속적인 지원과 조언 등으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음. 세일이앤씨도 공기 단축 등을 위해 모든 인력이 철야 근무를 하는 등 포스코건설에 적극 협조함. 그결과 현지회사가 중도포기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칠레 현지 발주처는 최근 5년간 수행한 공사중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성공한 공사였다고 평가함. 이를 바탕으로 페루 등 남미발전소(3건)을 추가로 수주했고, 카스티야, 이스라엘, 이탈리아, 사우디 등 활발한 해외진출에 성공함. 특히 세일이앤씨는 칠레 현지 업체대신 한국의 2~3차 협력업체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동반성장의 실천 주체로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수행

2 대기업 발표 : ㈜삼성전기

○ (내용) 국내 최초로 협력사와의 개발협업 공간인 "윈윈플라자"* 운영

* 국내최초로 협력사 인력이 상주하면서 공동 신제품 개발 등 기술협업 프로젝트 수행(100평 규모, 13개사 상주, 총 635개 과제 추진)

3 중소기업 발표 : ㈜에스틸

○ (내용) 1차협력사(두산인프라코어)인 ㈜에스틸의 2·3차 협력사로의 동반성장 확산 노력

- (추진계기) ㈜에스틸은 모기업(두산인프라코어)의 동반성장 노력에 혜택을 입고, 자신들도 2·3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
- (추진실적) 동반성장 전담부서 운영, 전문인력 파견, 부품공동개발, 납품단가 원자재 인상 반영, 현금결제 확대 등 적극적 동반성장 노력으로 협력사 매출 증대(전년대비 50%)